



박영순 · 이상민 · 허태정 누가 대전시장 본선 나설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 레이스 본격화

박영순 · 이상민 ·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3명이 본선 직행을 향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유성읍은)은 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후보경선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했다.

이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대리인(김홍섭 대전광역시당무특보 영인, 지난 1일 100여명 정책자문단 출범, 5일 이종기 · 김인홍 前 대전시 부시장과 권희태 前 충남도 부지사 영인 등 광복 대세물이에 나서고 있다.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지난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박 예비후보는 '힘 있는 시장, 당당한 대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민의 행복이 훗날 대전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발전의 지평을 모을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힌 바 있다.

이의원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 중 · 충남고 · 충남대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 유성에서 4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 법사위원장, 미래전략 · 과학기술특위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과학기

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지난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박 예비후보는 '힘 있는 시장, 당당한 대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민의 행복이 훗날 대전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발전의 지평을 모을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힌 바 있다.

이의원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 중 · 충남고 · 충남대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 유성에서 4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 법사위원장, 미래전략 · 과학기술특위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과학기

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철도산업 슈퍼 클러스터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한 △입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 역량 집중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원도심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 조성 △강력한 도시뉴딜사업 추진 등의 공약사업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무현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근무하며, 쌓은 두터운 중앙정부 인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전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충남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전광역시청 정무특별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허태정 전 대전 유성구청장도 대전시장후보경선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6일 오후 민주당 중앙당에 대리인(송승의 더행복권 총무팀장)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전시장경선후보 등록을 마쳤다.

허 예비후보는 지난 1월 대전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동-서 격차 해소 ▲동부지역에 제2의 대덕특구 조성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청소년 진로진학사업 확대 ▲고교의무급식 시행 ▲청년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을 내세웠다.

또 "대전의 제도와 정치를 시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공직자와 시민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시켜 지방자치의 모델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며 "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께 하는 시민, 스마트한 대전"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허 예비후보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대성고, 충남대 철학과를 나와 2003년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 2005년 과학기술부총리 정책보좌관, 2006년 대전참여연대 사회문제연구소 이사, 2006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복지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력과 행정력을 쌓았다. 이어 2010년 유성구청장에 도전해 당선된데 이어 2014년 유성구청장 재선에 성공하며 유성구를 '도시경쟁력 1위' 도시로 올려놓았다.

허 예비후보는 지난 1월 대전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동-서 격차 해소 ▲동부지역에 제2의 대덕특구 조성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청소년 진로진학사업 확대 ▲고교의무급식 시행 ▲청년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을 내세웠다.

허 예비후보는 지난 1월 대전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동-서 격차 해소 ▲동부지역에 제2의 대덕특구 조성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청소년 진로진학사업 확대 ▲고교의무급식 시행 ▲청년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을 내세웠다.

한편,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권리당원 여론조사 50%, 일반국민 50%를 합산해 실시되며 1위 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세종시 · 연구특구 협약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난 6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과 과학벨트 세종기초지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문성 · 리더십 갖춰...본선 승리 자신 있다"

김인태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6 ·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덕구청장으로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인태 예비후보는 5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송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의 10가지 대표공약 발표와 함께 자신이 유일하게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10년전 언론에 보도된 한남대 후배들의 '괴를 바칠테니 일지리를 달라'고 절규하는 기사를 소개하고 100번을 넘게 이력서를 쓰고도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단과대학 수석졸업을 하고도 문전박대 당했다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처럼 불행하고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고 소외되지 않고 사담답게 삼 권리를 누리 수 있게 하기 위해 대덕구청장에 출마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을 준비된 후보, 전문성이 있고 변화를 이끌

며, 전문성이 있고 변화를 이끌어가며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이 있는 후보이며, 지난 12년의 패배의 고리를 끊고 자유한국당 후보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1700만의 국민이 무능한 자유한국당 정권을 끝장냈듯이 대덕구에서도 당원동지 여러분이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한 번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했다.

김인태 예비후보는 충남 공주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 한남대학교 학사, 석사를 졸업하

였으며 공주영상정보대학(현 한국영상대) 겸임교수, 대한민국 국회 정책비서관, 대전광역시 서구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 대전선대위 공동기획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대전선리 유공자 1급 포상을 받았다.

현재는 대덕과더불어포럼 대표이며 대전YMCA 청소년장학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A대학 학생 등 개인정보 4만여건 유출

총 4만 2361건 경찰수사의뢰

대전 A대학 학생 · 교직원 정보 4만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A대학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오후 5시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특정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통보됐다. 대학측 확인 결과 사이버교육 시스템에 저장된 2000년과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입학이나 입사한 학생이나 직원들 개인정보 4만 2361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A대학은 지난 3일 학생 및 일부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 자체적 조치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수사의를 의

뢰했다.

유출내용은 이 대학 사이버교육 시스템에 저장된 지난 2000년과 2006-2016년 사이에 입학 및 입사한 구성원 일부의 개인정보(학번(사번), 이름, 단과대학, 학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메일주소, 주소(상세주소 제외))로 총 42,361건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제외한 기타 홈페이지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시점은 자료의 내용상 지난 2016년 4월 이전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개인들에게 유출사실 통보는 물론, 대학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

아울러, 정보유출이 확인된 특정 사이트는 폐쇄했으며 추가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한 유출자 신원파악과 검거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

또한 피해자의 민원 해소를 위해 전담 부서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국가기관의 자문을 통해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거듭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재발방지와 함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이정복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왔습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된다는 사실은으로도, 자동차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신뢰를 받고, 두꺼운 엔진을 누르는 행복한 자동차 여행을 향유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의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1. 2.5L 4-CY

2. 2.0L 4-CY

3. 2.0L 4-CY/2.0L 4-CY

4. 2.0L 4-CY

“열악한 무선와이파이 보급 개선해야”

조삼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김지철 교육감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허구성 지적

조삼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쇼(show)통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김지철교육감이 방문한 내포중학교의 디지털교육 실태를 교육부홈페이지 및 언론사에 배포된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며, 가상현실·증강현실이 핵심인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한 전자책에 불과하고, 단종된 컴퓨터 소프트웨어교육이 사용되는 등 혼란현실을 팩트 체크(fact check) 자료로서 제시했다.

또한 시제로 보여 준 내포중학교의 시설은 SW연구학교라고 부르기에겐 턱 없이 시대에 뒤떨어지며, 전선과 케이블은 교실 벽을 따라 늘어져 있고, 무선 와이파이기가 아닌 랜선이 꼬여 있는 사진 자료 등을 공개했다.

조 예비후보는 충남 초중등학교 무선 와이파이 보급률이 세종시의 4분의 1수준도 안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교육정보원(2016)의 시도교육청 무선 와이파이 설치 현황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는 99.1%인 반면, 충남은 충북의 보급률에도 뒤떨어지는 21.5%이다.

내포중학교의 실상은 디지털교과서와 SW교육분야에 두각을 나타낸다는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의 설명과는 거리가 멀다.

내포중학교에는 873명이 재학(2018년 기준) 중인데, 컴퓨터실은 1개 뿐이며 학교홈페이지도 소프트웨어(SW)운영보고서도 2016년까지만 소개되어 있다.

한편 조삼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디지털 기기의 유행성 논란은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엄격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라고 김 교육감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디지털 기기의 유행성 검

증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5일 김 교육감은 디지털교과서의 유행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미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전자파에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예비후보는 만약 김 교육감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국내외의 과학적 검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김 교육감의 무책임, 무책임에 대해 충남도민과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유성구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유성' 캠페인 전개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과 사전투표일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4월 7일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유성'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과학어울림마당 '걷기대회'에 참가한 2,000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일과 사전투표일을 홍보하며 홍보용품을 배부하였고,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유성'이라는 내용의 대형 글자판을 활용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대전시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건의안 처리

동구의회, 제24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박선영은 4월 6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나영 의원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오관영 의원의 5분 발언을 청취했다.

이나영 의원은 건의안에서 대전광역시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건의했으며, 오관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삼성동 304-12 ~ 369-10번지선 도로 보행자 안전대책'과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취약계층의 거주지인 경로당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나영 의원은 '대전광역시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건의안'에서 국립현충원이 있는

대전은 명실상부한 호국도시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대전시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월 5만원으로 많은 지역과는 20만원의 차가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며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오관영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먼저 옛 국도였던 일방통행로인 삼성동 304-12 ~ 369-10번지선 도

로가 도로변 양방향에 주차된 자동차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행자를 위한 도로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규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폐암, 급성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과 아이의 거주공간의 하나인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제24회 임시회는 12일간의 일정으로 2일간의 일반안건과 4일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처리하고 17일에 폐회 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이상민 의원, 글로벌 기업 CEO 대전 행사유치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유성읍)은 “세계 굴지의 글로벌 CEO들이 대전지역 청년취업기회 확대와 글로벌기업-대전기업 간 상생을 위해 캠프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제임스 김)와 충남대학교는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의 취업기회 확대 ▲대전시-임종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기업-대전소재기업 간 상생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오는 9일 충남대 산학연교육연구관에서 ‘글로벌 CEO와 함께하는 임종(AMCHAM) 혁신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제임스 김 임종 회장(前 한국GM·한국MS 대표),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전유미 켈리서비스 대표, 이용탁 ETS글로벌한국대표, 정영희 한국허발라이프대표, 민호기 한국오라를 상무, 이성용 한국IBM상무 등 글로벌 기업 대표자들이 멘토단으로 참여한다.

공주 우성중,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지원사업 선정

국비 4억 8천만원 포함 총 16억원 투입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공주, 부여, 청양)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공모사업에 우성중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따라서 공주 우성중학교에 국비 4.8억원을 포함 총 16억원을 투입해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서게 되어 우성중학교 학생들

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되면, 지역주민의 교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국비 4.8억원, 충남도 교육청 8억원, 공주시 3.2억원 등 총 16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의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농구 배구 등 각종 실내 운동이 가능한 다목적 구장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 이 체육관은 사업 명칭인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도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됨에 따라 학생 뿐 아니라 지역민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화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 의원은 “사실 우성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작년에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해 올해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공을 들였다”며, “체육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생들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지역 화합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제 때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토론회’ 개최

여기구 의원 ‘4차 산업혁명 핵심 신기술 보호·육성대책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여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직)은 지난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비례), 특허청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식재산 정책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청 정

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특허청 박호형 과장은 “영국은 근대 특허제도 도입으로 1차 산업혁명을 촉발시켰고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로 2·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다”면서 “특허 품질 관리와 R&D·출원·심사 등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천·핵심 특허 확보가 가능한 공백 기술을 도출하고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지원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빅데이터·AI진흥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단국대학교 송승우 교수

는 “우리나라의 2016년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420억에 이른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창의성을 위한 교육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송 교수는 “향후의 정책적 과제로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AI와 빅데이터 지식재산권을 저작권으로 인정하는 범위와 보호 정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식재산 연구원 류태규 본부장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이원복 교수 ▲법무법인 유미전우준 변호사 ▲에범스 KT 상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관련된 각 분야의 쟁점을 논의했다.

당직=최근수기자

대전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입후보인내 설명회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관계자를 대상으로 시·구 위원회별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입후보안내설명회는 오는 12일 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시작으로 18일 동구·중구, 30일 대전시·대덕구, 5월 22일 유성구 순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 신청방법과 서류 작성요령, 각종 신고·신청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정치자금사무 등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전선관위는 이번 설명회가 후보자등록 절차와 서류 구비 요령을 안내하고 올바른 선거운동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인 만큼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오세현 예비후보, 50만 아산시대 대비 공약과 비전 밝혀

더불어민주당 아산시당 예비후보 토론회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당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배방읍사무소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아산시당 예비후보 토론회에 참석, 자신이 구상하는 아산시정의 방향과 정책을 가지고 타 후보들과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권중 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오세현 전 아산시 부시장 외에 전성환, 이

위중, 박성순, 조덕호, 윤지상 등 6명의 예비후보들과 200여 명의 청소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아산시당 예비후보 토론회에 참석, 자신이 구상하는 아산시정의 방향과 정책을 가지고 타 후보들과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권중 선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오세현 전 아산시 부시장 외에 전성환, 이

힘을 합칠 것을 다짐했다.

오세현 예비후보는 정경발표를 통해 “지치분권시대를 여는 첫 시장이 되겠다”며, “20년간 중앙과 광역을 오간 행정경험을 통해 50만 아산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 지치분권 개헌 통한 지치행정 구현,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명사서 아카데미 운영 등 행정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오세현 아산시당 예비후보는 이날 토론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치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역 간의 정책 조율과 고교역할을 담당하며, 권한을 제대로 쓰고 책임질 줄 아는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33만 아산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대한 아산시대를 준비하자”고 호소했다.

아산=리광주기자

박경귀 예비후보 “시민과 함께 아산을 확보하겠다”

‘국정 운영 경륜과 식견을 펼칠 기회를 달라’ 열변 토해



박경귀 아산시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지난 7일, 200여명의 시민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경귀 예비후보는 자신의 경륜과 통찰, 식견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의 내빈으로 참석한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은 “박 예비후보는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갖춘 인재로 시장다운 시장이 되겠

다는 열정과 포부가 대단하다”며, “그동안 시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시장을 혁신하여 시장다운 시장을 세우고, 시장다운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어 소개된 축하 영상 메시지 에서 정중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 전 행정자치부장관)은 “박 예비후보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혁신단장을 맡아 지방공기업의 혁신을 이끈 추진력과 실력을 갖춘 분이다. 아산 시장을 혁신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박 예비후보가 원고 없이 즉석연설을 열정적으로 이어가자 박수와 환호가 연달아 터지며 달아올랐다. 박 예비후보는 “익수하고 어부만진다고 소름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진정한 소통은 시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정의적인 정책 발굴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까지 겸비해야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박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수많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 평가해왔다. 또 국민대통합위에서 중앙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는 일을 해왔다. 이제 (국정 참여를 통해) 축적된 경륜과 역량을 아산에 쏟아 붓고 싶다. 아산 발전을 이끌고 싶다면 감정이 울컥한 목소리로 열변을 토했다. 박 예비후보가 자신의 특별한 경륜을 소개하면서 아산시장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낸 5분여의 짧은 연설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다.

아산=리광주기자

本 社 辭 令

▲ 김민선
 命, 문화부기자
 (4월 9일자)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지역위원회 ‘ONE TEAM’ 선포식

민주당 소속 전체 후보 공정한 경선과 깨끗한 선거다짐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여기구)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ONE TEAM’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후보들은 ‘ONE TEAM’ 서약서에 서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당진시민들에게 깨끗한 경선과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였다.

‘ONE TEAM’ 서약의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하지 않고 정당당파를 경선에 입할 것이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경선 결과에 절대 승복하고 승리한 후보는 탈락한 후보

의 공약을 최대한 승계하며, 탈락한 후보는 경쟁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아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다.

선포식을 진행한 여기구 의원은 “저를 비롯해 당선된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ONE TEAM이 되어 국회, 도의회, 시청, 시의회에서 집권여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 열심히 일할 것을 당진시민께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당직=최근수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현대건설 컨소시엄 ‘세종 마스터힐스’ 견본주택 개관

세종시 새 중심 6-4 생활권의 3,100세대 랜드마크 아파트

-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6개동 전용면적 59~120㎡ 총 3,100세대 규모
- ... 세종시 해밀리 6-4 생활권 L1·M1블록 위치, 총 66개 타입 맞춤형 평면 공급
- 세종시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 쾌적한 주거환경 누리는 랜드마크 아파트
- ... 단지 인근 유치원·초·중·고교(신설) 및 중심상업지구 계획 등 풍부한 편의시설 갖춰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계획 확정으로 수요증가 전망
- ... 2019년 8월까지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692명(정원) 세종시로 이동
- 특별공급 4월 12일(목)~13일(금), 1순위 청약접수 17일(화)
- ... 당첨자 발표 25일(수), 5월 7일(월)~5월 13일(일) 7일간 계약 진행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태영건설·한림건설)은 오는 6일(금)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리 6-4 생활권 L1, M1 블록에서 선보이는 ‘세종 마스터힐스’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세종시의 새로운 생활중심 6-4 생활권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단지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단지는 지난 달 29일에는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안)’이 변경 고시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2개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었다. 1월 31일 기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1,692명(정원이)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동하게 되어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가 전망된다.

세종 마스터힐스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6개동, 전용면적 59~120㎡, 총 3,100세대 규모이며 L블록 1,990세대, M1블록 1,110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전용면적별로 △59㎡ 930세대 △84㎡ 1,394세대 △102㎡ 241세대 △112㎡ 385세대 △120㎡ 150세대로 구성된다. 각 블록별 세대수는 L1블록이 △59㎡ 930세대 △84㎡ 780세대 △112㎡ 180세대 △120㎡ 100세대이며, M1블록은 △84㎡ 614세대 △102㎡ 241세대 △112㎡ 205세대 △120㎡ 50세대다.

전체 세대의 약 75%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이루어지며,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총 66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 마스터힐스는 6-4 생활권에 위치하여 풍부한 교통과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BRT(간선 급행버스) 노선이 잘 갖춰져 있어 세종시 주요 지역 및 오송역과 대전 반석역과 대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1번 국도 이용이 쉬워 대전~조치원-천안으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해 광역교통망이 좋다. 단지가 위치한 6-4 생활권은 KTX 오송역과 가까워 서울 및 전국 주요도시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역교통망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생활인프라도 풍부해 단지 인근에 중심상업지구 예정지가 있어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1-4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가입주한 각종 생활편의시설 공유가 가능하다. 특히, 세종시 첫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2019년 10월 개원 예정)이 1-4 생활권에 들어설 예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 마스터힐스는 교육문화 특화단지인 꾸미진다. 단지가 들어서는 6-4 생활권은 학교를 작은 마을 개념으로 조성하는 복합커뮤니티 단지를 조성,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장려하고 자연친화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게 설계했다.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아이키우기 좋은 아파트로, 단지 내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신설 계획이 세워져 있다.

단지 가까이에는 근린공원과 녹지가 풍부해 입주자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617,012㎡ 규모의 오가농들 근린공원과 161,979㎡ 규모의 기쁨들 근린공원이 가까이 있어 자연과 어울려 운동과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습지생태원과 MTB 공원, 풀레길 등이 조성되어 있는 원수산도 가깝고, 조망이 가능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18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 세종월드CC도 인근에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좋다.

단지가 위치한 6-4 생활권은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한 개발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난다. LID 기법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을 땅속으로 천천히 스며들 수 있도록 레인가든, 침투도랑, 투수블록 등을 적



용한 친환경 빗물관리기법으로, 지하수 고갈이나 도심 온도가 높아지는 열섬현상의 해소에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

6-4 생활권은 신개념 복합커뮤니티가 조성되는 것도 특징이다. 외부 공간을 각 시설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용도에 따라 ▲문화의 언덕 ▲배움의 언덕 ▲풀밭마당 ▲모임마당으로 나누고, 주차장도 초등학교와 근린공원 주차장을 연계하여 이용 효율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세종 마스터힐스는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 적용으로 입주고객의 주거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한다. 실시간으로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도 가능하다.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단지 내 무인경비 시스템과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가 곳곳에 설치된다. 각 개별 현관에는 현관 안심카메라가 설치되어 센서 감지를 통해 거주수상자를

촬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이 탑재된다.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시스템도 적용된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사용자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가 적용 예정이며, 욕실폰+비상콜 버튼, Push&Pull 디지털도어록, 음식물쓰레기탈수기, 전동식 세탁 건조대(아파트 발코니 확장시 제공) 등을 제공해 입주고객의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설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아파트 주차공간을 모두 지하화해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동선을 확보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세종 마스터힐스의 분양일정은 이전기관 공무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4월 11일(수),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당해지역 특별공급이 4월 12일(목),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기타지역 특별공급은 4월 13일(금),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는 4월 16일(월)이다. 1순위 청약접수는 4월 17일(화), 2순위는 4월 18일(수)에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4월 25일(수), 당첨자 계약일은 5월 7일(월)~5월 13일(일)까지이다.

분양 관계자는 “세종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신규분양가가 시세에 비해 합리적이라는 점과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어 미래가치가 높다는 점이 장점이다”면서 “대형사 컨소시엄의 랜드마크 단지인데다 새로운 주거중심지인 6-4 생활권에 위치한 만큼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 전국구 청약지역인 만큼 세종시와 인근 대전·충청권뿐 아니라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세종 마스터힐스 견본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0년 9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044-216-6210>

■세종 마스터힐스 단지 개요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리 6-4 생활권 L1, M1블록
- 규모: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6개동 규모 (L1=44개동, M1=22개동)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 여성 일자리 창출

서산시, 여성이 일하기 좋은 12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

서산시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시는 가나스틸, 다인돌봄, 성암실업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12개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과 6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된 이 협약으로, 시는 모성보호,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구직자에 대한 적극적 고용유지와 취업지원을 약속하는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날 협약에는 ▲자동차부품 제조 ▲간병사업 ▲서비스 청소용역 ▲건설업 ▲보육시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이완섭 시장과 기업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고, 협약체결에 이어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여성 친화적 임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 발굴하고 적극 지원한다.

특히 이 기업에는 세일(결혼이민)여성인턴지원금과 기업환경개선 사업지원금이 우선 지원되며, 찾아가는 근로자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 등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이완섭 시장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번 협약이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지역여성 고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돕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 93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고 협약을 맺은 기업체에 1,164명의 여성구직자를 취업 연계하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16개 단지 선정

아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2018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한도아파트 외 15개 단지를 선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8.01.01. 기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2015년 이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아니한 단지이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규모는 예년과 같은 416백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LED전등 및 CCTV 교체공사 ▲안전을 위한 어린이놀이대 유지보수 공사 ▲공동주택 내구성을 위한 도색공사 등 사업이다. 단지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산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거주비용이 높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0개 단지에 59억을 지원했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별도로 임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온라인 투표 이용 지원 및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외부계 감사비용을 지원하며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학생들과 함께 북한산 생태복원 봉사활동

KT&G복지재단, 올해로 6년째 9500여 그루 심어...친환경경영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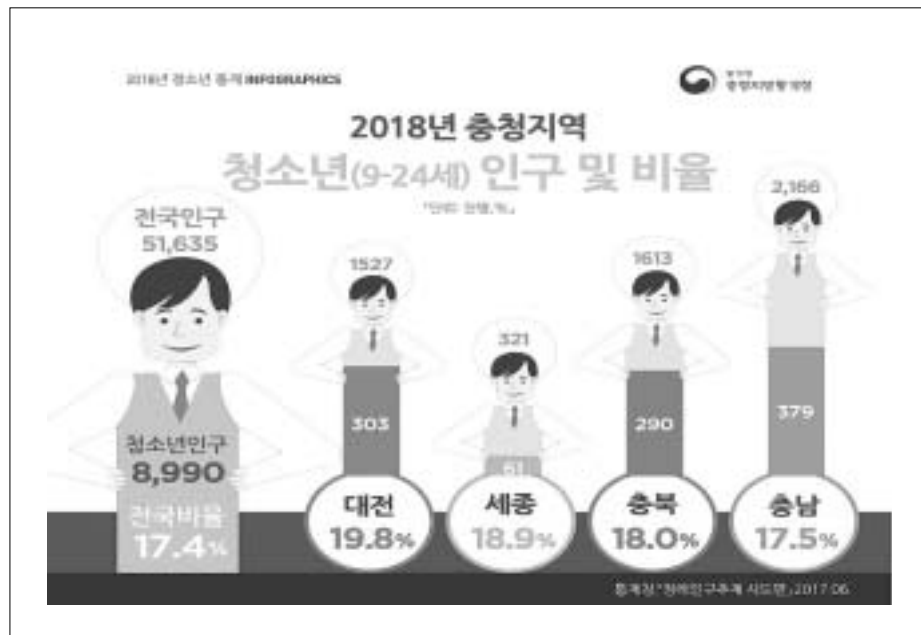
KT&G복지재단이 사장 광영균은 지난 7일 대학생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 인근에서 '2018년 북한산국립공원 생태복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송추계곡 내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산림훼손 지역에 북한산의 자생종인 프리조팝나무 2천 그루를 심고, 곤충 서식지 마련 등 산림조성 활동을 펼쳤다.

KT&G복지재단은 '도심 속 자연공원을 보존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확고하고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북한산국립공원 일대에 총 9,500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생태복원 활동을 6년째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

번 행사를 앞두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북한산국립공원 자연보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보다 앞서 KT&G복지재단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강원도 양양 낙산사 인근 산발 피해지역에 모두 3천 8천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화재 이전의 옛 모습을 되찾는데 기여한 바 있다. 또 나라밖 몽골에서도 지난 2017년 7월, 'KT&G복지재단 몽골 임농업교육센터'를 설립해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과피로 인한 난민들의 자립을 돕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철도공단 19년 선로작업계획 조기 확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열차가 운행하는 구간의 선로 상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보수 등 철도시설물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2019년 선로작업계획'을 지난달 말 조기에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로작업이란 철도시설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및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선로 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열차가 주로 운행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하루 3시간 30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번에 수립한 선로작업계획은 작업일시, 구간, 작업 종류 등 특성에 맞게 작업시간을 조기에 확보했다.

만약, 선로작업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작업자는 시간에 쫓겨 서두르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유지보수를 적기에 시행할 수 없어 철도시설물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작업이라도 여러 번에 나누어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관계로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하고자 철도공단과 철도공사는 작업시간 확보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난해 초 75%에 불과하던 선로작업시간 확보율을 이번엔 92%로 확대했고, 2020년에는 98%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2019년 선로작업계획 조기 확정을 통해 선로작업자와 철도운영자의 안전한 선로사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로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지난해 기초연금 88만 명 신청안내... 53만 명 신규로 혜택 받아

국민연금, 1:1 맞춤형 신청안내 확대로 전년대비 신규수급자 15만명 증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신청안내 및 서비스를 확대, 제도 시행 이후 최대인 53만 명의 어르신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지난해말 현재 487만 명의 어르신이 수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65세 도래 어르신과 기존 탈락자, 취약계층 등 88만 명에게 적극적인 신청 안내와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로, 전년대비보다 신규수급자가 15만 명(40%) 증가했다.

공단은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개별 안내를 강화했고,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집중 안내를 실시했다.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안내를 하고, 1:1 개별안내 대상을 확대해 26만 명이 기초연금 신규수급자

가 됐다. 기존 탈락자와 취약계층 어르신을 타겟화해 19만 명에게 집중 신청 안내한 결과 11만 5천명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게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급이력회망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해 수급가능 어르신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했다.

아울러, 공단은 쪽방촌 거주자, 무료급식소 이용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게 생활밀착형 안내를 전개했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오지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초연금 미신청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한편, 금년 4월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며, 단독가구는 3910원 오른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6240원 인상된 33만5920원을 각각 4월

급여(25일 지급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올 9월부터는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확정됐으며,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 규모로,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9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송병배기자

청양군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배출가스 감축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인증·고시한 차량으로 ▲문바이크II

(씨엔파트너) ▲발렌시아, Motz Truck(그린모빌리티) ▲투체(에코카) ▲DUO(시엔케이) ▲Z3(한중모터스)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며, 전기이륜차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기이륜차는 별도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 콘센트에서도 최대 4시간 정도면 완충할 수 있으며 특히, 일반이륜차에 비해 연료비가 10분의 1 수준으로 경제적으로도 우수하다.

자세한 내용은 청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청양군 환경보호과(940-2235)로 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소통과 화합으로 사랑받는 서구의회

소통과 화합으로 사랑받는 서구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백석문화대, 2018 학생홍보대사 위촉식



백석문화대학교는 4월 6일 교내 자유관 2층 회의실에서 '2018 학생홍보대사(11기) 위촉식 및 상견례'를 개최했다.

올해 모집된 학생홍보대사는 총 14명으로, 지원 인원이 111명임을 감안하면 카메라테스트, 심층면접 등 10: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이날 홍보대사 한명 한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송기신 총괄부총장은 "여러분은 이 순간부터 우리 대학의 얼굴"이라며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홍보대사 활동을 해주길 기

대한다"고 말했다.

홍보대사로 선정된 보건행정과 3학년 이용기 씨(24·남)는 "앞으로 대학을 알리기 위한 많은 행사들에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라며 "대학을 알리는 일인 만큼 우리 대학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정된 학생홍보대사들은 고교 초청 캠퍼스 투어, 전문대학 입시정보 박람회, 고교 방문 입시설명회, 입시 관련 홍보책자 및 동영상 등에 참여하며 대내외 학교 홍보활동과 관련해 활동하게 된다. 천안=이종호기자

"충남대에 글로벌 CEO 든다"

충남대학교와 함께하는 암참혁신 캠프 개최

충남대에서 글로벌 CEO들이 참여하는 암참 혁신캠프가 개최된다. 주한미 국상공회 의회소(AMCHAM Korea: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와 충남대는 9일 오후 2시, 산학연교육연구관 대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와 함께하는 암참 혁신 캠프'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1부에 오동욱 한국화이자 제약 대표이사, 전유미 켈리서비스유한회사 대표, 정영희 한국허벌라이프 대표이사 등 글로벌 CEO 3인의 특강이 진행된다.

이어 2부에는 제프리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 이영탁 이티에스글로벌비비이 한국지점

대표, 허금주 교보생명 상무, 민호기 한국오리를 상무, 이성웅 한국 IBM 상무 등이 7개 전문 분야별 멘토로 참여하는 소그룹 멘토링이 이어진다.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돼 이번으로 13회째 열리는 암참 혁신캠프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에게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알리고 투자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보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충남대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한 차례 개최됐으며, 암참 혁신 캠프가 2년 열리는 대학은 충남대가 처음이다. 이정복기자

'내 곁에 국민연금' 전면 개편

더 편리해진 모바일 앱, 더 가까워진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국민연금 모바일 앱이 전면 개편되어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객이 원하는 연금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자민원서비스 범위 확대(12종→42종), 푸시 서비스 등 편의기능 강화, 사용자 중심의 화면구성 및 디자인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새롭게 오픈한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들은 본인의 예상연금액, 가입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가입자 취득 신고 등 각종 국민연금 신고·신청과 다양한 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팩스 기능을 통해 각종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손쉽게 전송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서비스(GPS)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사를 찾을 수 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국민연금 모바일 앱 이용자들은 이전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해야 이용 가능하다.

김중진 본부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한전과 온누리상품권 MOU 체결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는 한국전력공사와 지난 6일 서울시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새·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138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 판매 중 보건용 마스크 광고 1706건 점검

식약처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 138건을 적발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인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약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한다.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70건) 했다.

'KF94·KF99'은 황사·미세먼지 차단과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인정받았지만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을 시정 지시했으며 시정 조치했음

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G마켓 등에는 허위·과대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온라인쇼핑몰별 위반 건수는 ▲네이버·G마켓 40건 ▲G마켓 19건 ▲홈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구입, 제품유형 및 착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보건용 마스크 구입요령을 보면, 소비자는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구입을 위해 제품 포장에서 '의약품'이라는 문자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보건용 마스크 허가 시 얼굴 틈새로 공기가 새는 '인면부 누설률'의 경우 KF80은 25% 이하, KF94 11% 이하, KF99 5% 이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사람이 공기를 들이쉬는 때 마스크가 입자를 차단하는 분진포집효율(차단율)의 경우 KF80은 80% 이상, KF94 94% 이상, KF99 99% 이상 여부도 검토한다.

KF80은 평균 0.6μm 크기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KF99는 평균 0.4μm 크기 입자를 각각 94%·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는 KF(Korea Filter)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해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최근 속옷에 삼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제품, 일명 '코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부터 코·인 등 전체적인 호흡기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의약품이 아니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는 제품 유

형별로 ▲일반형(접이형·컵형) ▲필터교체형 ▲배기밸브형 ▲필터교체·배기밸브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일회용 제품으로 상하 또는 좌우가 접히는 '접이형'과 볼록한 형태를 띤 '컵형'이 있으며 346개 품목(64개 업체)이 허가되었다.

필터교체형은 마스크 안쪽 면에 부착된 부직포 재질 일회용 필터를 교체하는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7개 품목 5개 업체가 허가됐다.

배기밸브형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보다 편안하도록 마스크에 배기밸브가 장착돼 있으며 18개 품목(9개 업체)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밖에 필터교체·배기밸브형은 배기밸브가 장착돼 있고 필터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으며, 2개 품목 2개 업체가 허가되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고정하고 코편을 눌러 마스크가 코에 잘 밀착 되도록 해 틈새로 새는 공기양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정환기자

'2018년 포레스톤 대회'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2018년 산림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포레스톤 대회)'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산림(Forest)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인 포레스톤 대회(ForestThon)는 산림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산림지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산림청과 한국입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다. 공모 분야는 산림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이나 웹 등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이다.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기획서를 작성해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봉관기자

아산시, 도유(일반)재산 관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3개 분야 11개 항목 전 분야 걸쳐 탁월한성과 인정 받아

충남 아산시가 '2017년도 도유(일반)재산 관리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도 도유(일반)재산 관리 실적 전반을 평가한 것으로 재정수입 증대, 도유 재산 관리, 업무 관심도 등 3개 분야 11개 항목 전 분야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라 세외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각대금의 귀속금 보전율을 A에서 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해 30%~20%까지 차등 적용받게 되는데, 아산시가 종합평가 최고 등급인 A에 따라 2천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매각대금의 30%를 보전 받을 수 있어 향

후 세외수입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는 직원들의 노력뿐 아니라 유류지 및 무단점유지 발굴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과수농가 대상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기본교육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GAP인증 농가 확대 위해 실시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지난 6일 관내 과수농업인 8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GAP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교육은 기술센터 류원근 팀장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에 대한 기본교육과 남윤우 팀장의 친환경 유기농재재 활용기술 및 농작물 검

역병해충 방제의 이해 순으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농약안전사용과 과수 화상병 및 외래 돌발해충 방제에 대한 교육이 실시돼 재배농업인의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청양=정성범기자

대전 광학융합부품소재산업화 기반구축 거점 선정

한밭대학교, 2022년까지 5년간 228억원 지원 받아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광역시 지원하에 '지역산업거점기반지원사업'의 '광학융합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에서 주관기관(총괄책임자 명태식 단장)으로 확정됐다.

지역산업거점기반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활용 시설·장비 등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주력·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시·도에서 47개 신규과제를 신청한 가운데 민간평가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종 주관기관을 선정했으며, 한밭대는 대전시의 '광학융합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2022년까지 5년간 228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80억원, 민자 4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로써 한밭대는 최근 대전지역 유일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과 더불어 대전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완성과 지역 산업 및 경제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밭대가 맡게 될 '광학융합 부품소재 분야'는 광학계를 기반으로 하는 광·전자,

디스플레이 부품들이 결합된 소재 및 부품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 AR/VR 등 4차산업혁명 제품군의 이미지 센서 및 디스플레이 부품의 핵심 기술로서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대전에 광학융합 부품소재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 광학관련 기업지원혁신센터의 역할을 하게 돼 지역 내 관련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밭대는 대덕신학융합캠퍼스에 스마트광학혁신사업단을 설립하고, 광학설계실, 시제품제작실, 측정/평가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광학융합 부품소재 분야의 시제품 및 신기술을 개발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시장 개척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맞춤형 광학융합 부품소재 신기술을 확보해 1차 타깃 제품인 차량용 HUD 자유형상 광학계 제작에 활용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드론용 고해상도 카메라 광학계, 진화형 로봇센서용 안면인식 카메라 광학계 등에도 연계 응용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공주시 '희망나눔 연결운동' 업무협약

나눔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의 날개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5일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회장 김정안)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희망나눔 연결운동' 업무협약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익법인 교육복지 후원 기관으로 2007년에 설립되어 많은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지원과 후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공주시가 추천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15명에게 장학금을, 2명에게 컴퓨터를 후원하며 교육이용권 100명, 도서 20명, 유아도서 800명, 2억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포함해 2년간 3억원 상당을 후원하는 등 지역내 소외된 아동 및 청소년이 마음껏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공주=정성범기자



포항시·거창군, 온양3동 벤치마킹 방문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동(공공위원장 라정기, 민간위원장 배장락)의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8명과 경남 거창군 주상면(주상면, 중앙면, 고제면)의 복지허브회사팀 담당 5명이 5일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및 지역특화사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의 온양3동 민관협력 및 지역특화사업 우수사례를 듣고 청사 2층 맞춤형복지팀 사무실, 계단갤러리, 담장갤러리 등을 둘러봤다. 아산=리량주기자

포항시 상대동 라정기 동장은 인사말에서 포항시의 대표축제인 해맞이 축제와 불꽃축제를 소개하며 "맞춤형복지팀은 2017년 7월 신설됐고 보장협의체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어려

경찰청, 재외국민 보호 등

주요 유럽 국가와 치안협력 강화

이철성 경찰청장 4월 3일 러시아 내부장관과 치안 총수 회담 개최하여, 교민·여행객 보호 및 러시아 월드컵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상호 체류 교민·여행객 보호 및 범죄예방, 테러 위협인물 및 행사방해 우려 인물 정보 공유, 중요 범죄자 도피사범 송환 활성화, 조직범죄 등 국제범죄 공동 대응, 고위급 상호방문 정례화 및 실무회의 등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한국 교민(17만 명) 및 여행객을 보호하고, 테러정보 공유 등의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경찰협력 센터(IPCC) 의정서에 서명하고, 대회 기간에 경감 급을 단장으로 한국 경찰관 4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콜로체프’ 장관은 러시아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이미 증명된 한국 경찰의 경호·경비 방법을 공유하고, 도피사범 송환·재외국민 보호·국제 공조 등의 내용으로 양국 경찰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 청장은 모스크바 경찰청을 방문해 ‘바라노프 올렉’(Baranov Oleg Anatolievich) 청장과 만나서 모스크바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과 여행객에 대한 범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4월 4일(수)에는 ‘디터 로만(Diter Romam)’ 독일연방경찰청장과 치안총수회담을 개최하고, 대테러·경비 분야 교류 확대 및 업무협정 체결 등의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봉관기자



부여소방서, 옥녀봉 진달래꽃 축제 소방안전체험장 운영

지난 7일 주말 옥산면 일대에서 개최된 제13회 옥녀봉 진달래꽃 심리길 축제 행사장에서 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체험장은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할 안전상식을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서천소방서, 라디오로 함께해요”

지난 5일 편안한 분위기 속에 주민들과 소통하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라디오 방송 “땀! 의소대”에 김근제 서천소방서장이 게스트로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아산경찰서, 치안성과 보고대회 개최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규)는 6일, 아산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및 각과장, 계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부서별 경찰서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두 번째 치안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대전현충원, 구봉중과 '1사 1모역 가꾸기' 결연 협약식

대전현충원(원장 권윤성)과 구봉중(교장 이윤희)은 대전구봉중학교(오른쪽)가 지난 6일 현충원 의전대기실에서 '1사 1모역 가꾸기 결연 협약식'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에 소각장관련 주민 의견 전달

이창규 권한대행, 지역여론 동향 뿐만 아니라 설치 신중 기해 줄 것 주문

충남 아산시 음봉면 폐기물소각장 설치 신청 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여론과 진정 등에 이창규 아산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나서 이러한 내용을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에 전달했다.

지난 5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이창규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음봉 폐기물소각장 설치 건에 대해 김동진 청장을 면담해 지역여론 동향 뿐만 아니라 설치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창규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김동진 청장과의 면담에서 “음봉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소각장 시설의 1Km 주변에 음봉중학교, 월랑초등학교, 유원대학교 등 학교시



설은 물론 약 3,100세대의 포스코 아파트 단지과 자연마을 등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각장 인근지역에는

14000여세대의 아파트와 3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학생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한다는 여론과 지역민의 진정과 반대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아산시 지역민의 반대여론을 전달하고 소각장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김동진 청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동진 청장은 “자신도 음봉 현지를 방문해 주변 환경을 살펴본 바 바로 옆에 고속사가 있고 인근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역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돌아왔다면서 앞으로 전문가를 통한 현장 조사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산시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주의 당부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웅)는 봄철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산행시 산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봄철 산악 기후는 대륙성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따스한 공기가 들어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사고위험이 증가한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나이를 고려한 산행코스 선정 ▲기온 급변을 대비한 등산복 등 보온장비 준비 철저 ▲출발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스트레칭 ▲부담으로 등산로 이탈 금지 ▲등산 중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산행 즐기 등 산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청양=정성범기자

선관위 서산시장 부인 30만원 기부 “합법 결론”



도 선관위 서산시장 부인 A씨가 대선일에 위치한 모 자선단체에 기부한 30만원은 정상적인 기부로 보고 합법으로 종결 처리 했다.

자선단체 간부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3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받은 30만원이 현금으로 판단 선관위에 신고 했

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가 모 자선단체 간부와 동석 했던 자원봉사자 3명과 시장부인을 조사한 결과 영수증이 오고간 정상적인 기부 행위로 결론 났다.

이날 시장부인 A씨는 “자원봉사자 3명과 함께 모 자선단체 사무실

에 들러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단체 간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한 것이 라고 주장해 왔다.

공직선거법 제 112조(기부행위의 정의)에 구호족자선적 행위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 하고 있다.

시민 모씨는 기부금을 받은 정도 자선단체 위치에 있는 간부가 기부 행위법을 몰랐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급조된 음모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공천경쟁이 치열해지니 당 내부적인 음모가 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음모자가 밝혀 질 경우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 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제18호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예산소방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덕산면 내리리 지정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지난 6일 오전 10시경 예산군 덕산면 내리리 마을회관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마을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화재 예방과 주민자율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행사를 실시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최근 3년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 중 신속한 소방출동이 어려운 원거리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2018년 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덕산면 내리리 마을이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이상보 내리리

마을이장 명예소방관 위촉장 수여 ▲화재 없는 안전마을 현판식 ▲기념촬영 ▲마을주민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각 가정별 소화기 보급 및 방문 소방안전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덕산면 내리리는 인근 덕산119안전센터로부터 약 10km 이상 떨어져 화재시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예산=양성업기자

더민주당 대전시당,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이종호 의장 영입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이종호 의장 영입 기자회견을 6일 오전 10시30분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조승래(유성구 갑) 6·13지방선거기획단장과 송행수 중구지역위원장 및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산별노조 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호 의장은 “보수정권 9년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노동기본권이 말살돼 서민의 삶은 비탄 끝에 섰다”며 “노동자 후보로서 서민과 소외계층의 삶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환영사에서 “문재인 정부 개헌에는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었다”며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노동 기본권이 인정되는 대전시 행정을 위해 이 의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노총 대전본부 소속 조합원 370여 명이 입장원서를 제출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식 지지자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산별노조 대표자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노동의 참 가치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전폭 지지하고, 민주당 대전지역 선거후보의 당선을 위해 한국노총 12만여 노동자 가족은 선거운동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아산소방서, 순직소방공무원 애도 위해 추모예술공연

순직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 추모하기 위해 실시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은)는 지난 달 30일 오전 9시 46분 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43번 국도에서 갓길에 정차한 소방펌프 차량을 25트럭이 추돌해 아산소방서 둔포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김신형(29)씨와 소방공무원 임용예정 실습생 문새미(23)씨와 김은영(30)씨가 안타깝게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아산지회)에서는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와 희생 앞에서 유족들의 큰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가족들과 아산시민의 가슴에 수호천사로 남아 있는 순직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추모예

술공연을 실시했다. 추모예술공연은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 박춘희 시인의 ‘청춘의 낮’을 추모하며 ‘현시’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묵념, 아산소방서 문재현 소방행정과장 경과보고, 아산에 충지회 장미숙 부회장의 추모시 등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황윤성 작가는 추모예술공연 안내 전 오후 2시부터 투조형식으로 천사의 날개 수호천사라는 조각품을 만들어 순직소방공무원들을 애도했다.

한편, 지난 2일 순직소방공무원의 영결식이 오전 9시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거행됐으며, 합동영결식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소방공무원 묘역에 안장됐다.

아산=리량주기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에 ‘앞장’

공주소방서 유구읍의용소방대, 설치 및 보급



감지기를 설치·보급했다. 이 날은 유구읍 남녀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감지기 보급 및 설치, 사용법 교육 실시 등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특출히 해냈다.

이와 더불어 마을회관 어르신들에게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119 신고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안전교육이 이뤄졌다.

홍훈기·신양순 남녀의용소방대장은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을 신속히 알려줄 수 있는 소방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급과 교육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소방서

'고등학교 진로변경전입학제 시행계획' 공고

대전시교육청, 6월 7~8일 희망학교 방문·체험활동 등

대전시교육청(교육장 설동호)은 4월 6일(금),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8학년도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진로변경전입학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진로변경전입학제는 고등학교 진학 후 진로·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학년 때 1회에 한하여 계열 변경 전입학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대전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특성화고와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간의 진로변경전입학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5년간 708명의 학생이 새로운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얻었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진로변경 희망 학생들은 먼저 소속 학교에서 상담과정을 거쳐, 2018년 6월 7일~8일 진로변경 희망학교를 방문하여 상담 및 학과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7월 12일~18일 전입학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7월 24일 전입학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정학교를 발표

할 예정이며, 7월 25일~7월 31일 해당 학교별 전입학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진로변경 전입학 이후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특성화고에 전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8월 중 학교별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학기 중에는 진로변경으로 인한 미이수 전문교과 이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고로 전입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대학 진학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상담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은 "고등학교 진학 후 진로·적성이 맞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 노력할 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진로를 변경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여 미래를 향해 노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 학교급식관계자 직무연수 실시

청양교육지원청, 관내 유·초·중·고 영양(교) 조리사 대상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유주영)은 지난 6월 관내 유·초·중·고 영양(교), 조리사 32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청렴 동영상 시청 ▲2018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운영 평가 방향 ▲당류 줄임 급식 제공방법 ▲식재료 전일배송 운영사례 공유 ▲친환경로컬푸드에 공동식단 협의 순으로 이뤄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

교급식점검단과 함께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등 위생 및 안전사고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비 점검 및 식재료의 검수 검품 강화를 위해 식재료 전일배송을 시범운영(정산 초 외 3교)하고, 청양군에서 1천만원을 지원 받아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센터 이 사업을 초·중학교 6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2018 충남기능경기대회 참관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간부 공무원들이 2018 충남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천안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경기를 둘러보고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충남기능경기대회에는 공업전자기, 동력제어 등 36개 직종에 306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다.



서산 서림유치원, 성폭력 예방 인형극 관람

서산서림유치원(원장 박혜자)이 지난 5일 신체활동실에서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어린이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관람했다. 증가하는 아동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아에게 인형극을 활용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잠재적인 성폭력 위험상황을 인지시키고 참여 및 상황극을 통해 위험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미술공연과 인형극을 관람한 원아들은 "미술이 너무 신기했어요, 낮은 사람이 나를 만지려고 하면 큰 소리로 안돼요를 외칠거예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통해 원아들이 성폭력 대처방법을 잘 알고 실천하여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서산=김정환기자



공주마이스터고, 선진 마이스터고 현장견학

충남대 사범대학 전기전자통신교육과 예비교사 방문

공주마이스터고교장 차성우는 지난 6일 미래의 예비교사들인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전기전자통신교육과 재학생 84명의 귀한 손님들을 맞이했다.

이날 학교에서는 학교안내와 더불어 교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과 더불어 전기전자 분야 실습실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하였다.

이들 통해 미래의 예비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었으며 교육적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변영우 교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는가에 달려있다. 교원양성기관인 대학교와 일선 학교에서의 협업을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

세종시교육청, 안전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안전문화 정착 위해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체험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8일부터 20일까지 '세월호 희생자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공문서 상단 홍보 문구란 추첨 문구 삽입 ▲학생 대상 안전 공모전(그림·동영상 등) 실시 ▲분청 전 직원 대상 '추모 배지(badge) 달기' 행사를 추진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활동과 연계한 안전 관련 동영상 상영하고, 현장학습·수학여행·체육대회 등 행사 시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8일 세종국립도서관 앞 호수공원 진입 도로에서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행복버스'를 운영한다.

이날 행사는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

수장)와 함께 4.16 세월호 희생 4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되새기며 세종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추진됐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세종시교육청, 세종소방본부 이동식 안전체험버스 ▲소방교육체험 조끼 및 소화기 사용 교육 등 소방교육체험 ▲방독면 및 생존배낭 사용 교육 ▲고급을 이용한 응급처치 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만 3세 이상의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6일에는 분청 직원, 관내 교감, 원감, 학생들이 안전 합동분양소와 안전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기억교실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18일에는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직원, 학생, 시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세월호 희생자 4주기 추모 동영상을 시청할 예정이다.

세종=이정복기자

'외국어 신문 동아리반 입단식' 실시

당진교육지원청 외국어교육센터, 영어반 17명·중국어 11명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은 지난 6일 관내 중·고등학교 21개교의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신문 동아리반(DFLEC Times(영어 및 중국어) 입단식을 실시했다.

이번 입단식은 영어반 17명, 중국어 11명을 신청받아 개설했으며, 4월 6일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 간 운영하게 된다.

앞으로 당진외국어교육센터 원어민 영어교사 담당 2명, 중국어 교사 1명이 중심이 되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직접 작성해 발표와 토론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렇게 일 년간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2학기 말에 영자 및 중국어 신문 'DFLEC Times'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홍덕 교육장은 "이번 'DFLEC Times' 외국어신문 2개 반 운영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외국어 분야의 핵심역량을 기르고, 나아가 국제적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충남도교육청 '행복나눔기자단' 4기 출범

2018 행복나눔기자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 및 연수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7일 충남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2018 행복나눔기자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했다.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4기를 맞이하는 행복나눔기자단은 충남도교육청이 학교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현장소식을 발 빠르게 교육수요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했으며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운영되고 있다.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행복나눔기자단은 학생 110명, 학부모 25명 등 135명으로 활동기간은 2019년 2월까지이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로체험의 기회로 삼아 꿈을 키우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역량강화연수에는 현직 기자로 활동 중인 김갑수 강사가 나와 좋은 기사 작성요령, 기사 윤리의식과 역할, 취재 시 에피소드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복나눔 기자가 취재·작성한 기사는 충남교육 홍보홈페이지인 '충남에듀윌'과 페이스북 등에 게재되며, 그중 우수 기사는 월간 '행복나눔 충남교육' 소식이에 실리게 된다.

이정복기자

아산시 지원, 주말 영어방과후학교 개강

관내 초등학교 3학년~6학년까지... 순천향대와 선문대 각 58명



아산시가 지원하는 주말 영어방과후학교가 순천향대와 선문대에서 이달 7일 동시에 개강한다. 참여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6학년까지로, 순천향대와 선문대에 각 58명(총 116명)이다. 운영기간은 4월 7일부터 6월 1일까지 10주간 20차시이며,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3시간씩 대학캠퍼스에서 대학교 원어민 교수가 직접 말하기와 듣기, 쓰기 지도한다.

한 학기 수강료는 순천향대가 34만원 선문대는 32만원이며, 아산시에서는 일반학생에게 16만원을 저소득층 학생과 다자녀 학생은 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과 다자녀 학생의 지원인원을 15%에서 25%까지 확대해 전체 참여학생 116명중 30명이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주말 영어방과후학교는 아산시가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다 강사진이 모두 원어민 교수로 배치되어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으며, 2017년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국제화교육특구(2007년 지정)로서 영어능력향상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교의 우수한 외국어교육인프라를 활용한 주말 영어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순천향대는 2007년부터 선문대는 2011년부터 지원했다.

시는 그동안 주말 영어방과후학교에 총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2,230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4천 5백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산=리명주기자

학습동아리에 해당 전문강사 지원

충남 남부평생학습관, 분야의 전문인력 사업 진행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학습관(관장 김용진)은 4월부터 12월까지 남부권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학습동아리 중 전문지도 강사가 필요한 등

아리를 대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년도 14개 학교에 이어 올해에는 최종 21개 학교 동아리가 선정되었다. 연산중학교 드론교실, 논산여성 토박이, 청양 정산고 티베이트 토론반, 서천판교중학교 캘리그래피 등 교과외활동과 학생들의 동아리 여건에 따라 1교 1동아리에 동아리별 8회에서 30회까지 전문강사와의 만남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찾아가는 더불어 숲 체험

대전 지역 유치원 17개원 선정, 전문 숲 해설가가 직접 방문·운영

대전유아교육진흥원(원장 편서향)은 오는 10월까지 최종 선정된 유치원 17개원을 대상으로 총 20회에 걸쳐 '2018 찾아가는 더불어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체험 중심, 자연과 교감하는 숲체험 활동을 통해 유아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대전 지역 유치원 대상으로 신청 접수받아 최종 17개원을 선정했다.

효과적 체험교육을 위해 체험 장소, 날짜, 시간 등 유치원의 수요를 조사·반영했으며, 전문 숲 해설가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유치원의 바깥놀이터, 인근 공원 및 숲에서 유아들이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자연의 기능과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놀이 중심의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의 장을 펼친다.

김정환기자

동정

읍면동장 위촉식



김홍장 당진시장 = 9일 오전 11시 당진시장 해나루 홀에서 열리는 제 9기 명예 읍면동장 위촉식에 참석.

청년정책 발굴 원탁토론회



한상기 태안군수 = 9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청년정책 발굴 원탁토론회에 참석.

연구구역보고회



이석화 청양군수 = 9일 오전 8시 30분 군청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업무계획 보고회를 주재한 후, 오전 9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데도 시직매장구축사업 연구구역보고회에 참석.



이산시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행사

이산시는 제73회 식목일을 기념해 4월 5일 오후 2시 대동리117-1번지 일원 1ha 일대에서 2년생 소나무 3,000여 그루를 심는 나무심기행사를 가졌다. 올해 나무심기행사는 지방동시선거, 산불방지 및 시감염 등을 감안해 이산시청 경제환경국의 단위로 한정지어 추진해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국가기념일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환경국장, 산림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산림조합 임직원 등이 참여해 미래의 중요로운 숲을 위해 정성 들여 나무를 심었다.

이번 행사 참여자들은 식목일 기념행사를 통해 나무심기를 직접 해봄으로써 숲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고 최근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과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이산=리량주기자



둔포면 석곡리마을 화단가꾸기 행사

이산시 둔포면 석곡4리(이장 하재화) 마을이 4월 4일 둔포면에서 진행되는 국토공원화사업에 발맞춰 화단가꾸기 행사를 실시했다.

아름다운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한 마을주민 10여명은 마을 내 화단을 조성하고 거리화분을 구입해 봄 분위기에 걸맞는 비올라를 식재해 주민과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하재화 이장은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를 진행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둔포만들기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산=리량주기자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탄력

당진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로 기대감 UP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당진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는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와 당진항 서부두를 연결하는 총연장 3.1km의 진입도로다.

지난 1995년 당시 해운항만청의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서 필요성과 노선 검토가 처음 시작된 이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와 인근 38번 국도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면서 건설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후 20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 되었고, 같은 해 3월부터 KDI(한국 개발연구원) 공공



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통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된 교통량 분

석 등 도로건설 타당성 조사 결과 연결도로가 건설되면 평택·당진항으로 진입 시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운송거리가 약 19km가

량 단축된다.

또한 이로 인한 물류비 절감 효과는 30년간 약 5,33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는 당진항 지역 이용 활성화로 평택당진항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특히 충남 서북지역과 경기 남부권의 원활한 물류수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당진시는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충남도와 적극 협력해 설계에 필요한 국비 추가 확보와 공사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청정지역 구축 민·관 맞손

15개 기관·단체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태안군이 지역 기관·단체들과 '행복홀씨 입양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간 주도의 '깨끗한 태안 만들기' 사업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상기 군수를 비롯, 지역 15개 기관·단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홀씨 입양 사업 업무협약식'을 갖고 '청정 태안' 구축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행복 홀씨 입양사업은 지역을 아름답게 가꿔 행복을 만들며 홀씨처럼 퍼뜨리지는 취지의 민간주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공원 ▲유원지 ▲하천 ▲유휴 공간 ▲도서지역 ▲도로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민간단체가 '입양'해 자율적으로 환경정화활동과 꽃가꾸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달 9일까지 지역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재)천리포수목원 기획경영부, 한국자유총연맹 태안군지부, 태안을 진흥아파트 부녀회, 안면읍 승연3리 마을회, 남면 마검포 어촌계, 근흥면 주민자치위원회, 소원면 만리포 마을회, 원북면 체육회, 이원면 관3리 마을회, 이원면 지역발전협의회, 안면읍 꽃지마을회, 남면 원정리 어촌계, 지역군부대 등 15개 기관·단체가 적극 참여해 지역 사랑에 앞장섰다.

참여 기관·단체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매월 1회 이상 청소와 꽃가꾸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며, 군은 참여 단체에 물품과 홍보포지판을 제공하는 한편 봉사시간 제공과 우수단체 연말 표창, 언론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주민과 지역 기관·단체의 자발적 환경정비 참여를 유도해 누구나 찾고 싶은 청정 관광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특히 오는 9월 개최되는 제70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군민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상기 군수는

"행복을 널리 퍼뜨리는 '행복 홀씨 입양사업'을 계기로 태안군이 '청정 태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사랑의 마음으로 이번 사업에 함께 해 주신 지역 기관·단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칠갑산장승문화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회 열려



강준배 부군수는 "개방된 옥외행사이드로 관람객 동선에 안전관리요원을 집중배치하고 분야별 안전사고 대처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하고 성공리에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축제 개최 전일에 전기, 가스,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제20회 칠갑산장승문화축제는 오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대치면 장곡리 장승공원 일원에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당진시 관내 아동 대상 예방교육 추진

당진시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 예방교육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충남장애예방센터와 연계해 관내 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 등의 신청을 받아 최후장애를 가진 강사가 휠체어를 타고 본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각 기관을 방문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일명 휠체어 강사님으로 불리는 강사들은 국립재활원에서 최후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성한 전문 교육 강사다. 이들은 사고사례 등 실제 사고 경험을 중심으로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현실감 있는 교육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어릴 때부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후천적 장애 대해 요령과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개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누구에게나 장애가 올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장애인 10명 중 9명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라며 "후천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의식 함양과 사고예방에 대한 정보전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 보건소는 지난해에



도 관내 어린이집과 학교 등 60곳에서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 예방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노인보건의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태안군 공직자 나눔문화 확산 동참

군청·8개 읍·면사무소 행복나눔 기부데이 행사 열려

태안군 공무원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기부 행사를 열어 큰 관심을 끌었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문준, 이하 노조은 태안군 푸드뱅크대표 임영관과 손잡고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태안군청 1층 로비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행복나눔 기부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푸드뱅크란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불우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는 식품나눔 사업으로, 노조는 군청 중앙현관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물품함을 비치하고 이틀간 물품 기부 접수를 받았다.

태안군 공무원들은 식품과 세면용품, 생활용품, 세탁류, 의류 등 총 1,775점에 달하는 물품을 전달해 이웃사랑의 뜻을 함께 나눴으며, 노조는 6일 군청 현관에서 기부물품 전달식을 갖고 군청 및 각 읍·면 접수 물품을 모아 태안군 푸드뱅크에 전달했다.

기부된 물품들은 푸드뱅크를 통해 관내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복지소의계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기부행사를 통해 공직자들이 직접 기부를 체험케 함으로써 나눔과 배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하는 노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 배방 신도시 아늑한 공원 바뀐다

아산 배방 신도시가 봄을 맞아 아늑한 공원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

배방읍에서는 아카시아 등 잡목과 잡초가 무성해 주변경관을 해치던 용연마을 1단지와 2단지 주위의 황량한 경사면에 철쭉과 자산홍 등 1만 그루를 식재 중에 있다.

내년 봄이던 철쭉, 자산홍이 만개해 화려한 철쭉단지로 변모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용곡공원에 기로등 15주를 설치해 황룻길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국환 배방읍장은 "배방 신도시의 인구가 벌써 2만5천명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인구수에 걸맞게 도시 녹지 환경정비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앞으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녹지지역 병해충 방제 및 제조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방읍에서는 올 봄 호수공원 주변에 양뿔나무 등 120주를 식재하고 아산역 주변 공원 내의 소나무 200여주를 정전 작업한 바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남양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청양군 남양면(면장 이원익)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자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면은 현재 이월된 체납액 701만5000원 중 1905만4000원을 징수해 전체 체납액 대비 2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체납원인을 상세히 분석해 체납자별 징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총력을 기울임 방침이다.

또한 상습체납자는 변호관 영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불가능은 결손처분할 예정이며, 소액체납자는 마을별 분담직원 징수책임제를 운영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원 남양면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성실 납세자의의 행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논산딸기축제 '세계딸기축제로'

다채로운 테마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가능성 입증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

국비 32억 확보...올해 기본계획·실시설계 진행

계룡시(시장 최홍목)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과 지역 간균형적인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2억원을 포함, 총 100여억원을 투입해 두마면 두계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연면적 3800㎡)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곳에는 배드민턴,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생활체육 시설과 헬스장,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기존 체육시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며, 시 체육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체력 및 건강증진 기여, 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 일자리 창출의 고용효과 등 다양한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최홍목 시장은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지역간 균형적인 공공체육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쌀 산업발전 특별지원 협약 체결

부여군, 소득 안정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5일 부여군, 농협, 농업인단체간 쌀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우 부여군수, 최석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부여군지부 백남성 지부장, 부여군농협운영협의회 소집단 의장, 부여군농업경영인회 송기선 회장, 부여군농민회 서형탁 회장, 부여군쌀산업농협회 김민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연이은 풍작으로 쌀 공급과잉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쌀 가격은 20년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하락으로 직결됨에 따라 부여군은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쌀 산업발전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는 부여군, 농협, 농업인단체간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농업용 드론방제기 구입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 농업용 드론방제기를 활용한 방제기술 보급,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드론조작 기술교육, 조직화, 기술컨설팅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직접적인 생산비 지원으로 농가영농비 절감,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육성으로 소득 안정, 참여주체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계룡시 장학증서 수여식 열려

애향장학회, 총 98명 선발, 장학금·국외연수 지원

(재)계룡시애향장학회(이사장 최홍목)가 6일, 계룡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학부모와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회는 초·중·고·대학생 중 예체능 특기와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일반 장학생' 78명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국외연수 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장학회는 일반 장학생에게 총 597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대학생 국외연수 장학생에게는 오는 7월 4주간 캐나다 센테니얼 주립대학에서 진행되는 해외연수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이날 수여식에서는 서울대 및 고려대에 재학 중인 국외연수 장학생이 후배들에게 학창시절과 대학생활에 대한 솔직하고 현장감 있는 경험담을 들려주는 시간을 거쳐 지역 학생들 간에 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수여식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계룡시가 일류 도시로 성장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홍목 시장은 "지역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학생들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교육철학이 계몽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한다"며 장학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018 논산딸기축제'가 비와 꽃샘추위 속에서도 주말 인산인해를 이루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는 물론 글로벌 축제 위상을 실감케 했다.

4월 5일부터 8일까지 논산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논산딸기축제는 50여년의 재배역사가 담겨있는 친환경 명품 논산딸기의 진면목과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시키며 5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논산딸기축제는 관람객 58만여명이 찾았으며 딸기판매 및 논산딸기브랜드 상승효과 등 240여억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축제는 4일부터 8일까지 첫째날은 관광객과 함께하는 날, 둘째날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날, 셋째날은 외국인과 함께하는 날, 넷째날은 화합의 가족 만들기 날, 마지막날은 논산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는 화합의 날로 정하고 차별화 테마별로 5개분야 90개 프로그램을 준비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축제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서 참여형축제, 논산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통한 문화관광축제, 세계중심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감동을 느끼는 성공적인 축제가 됐다는 평가이다. 특히, 네팔, 투르크메니스탄, 루마니아, 방글라데시 등 주한 외교관 명품 논산딸기의 진면목과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시키며 5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논산딸기축제는 관람객 58만여명이 찾았으며 딸기판매 및 논산딸기브랜드 상승효과 등 240여억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월부터 21개 체험농가에서 이뤄진 최고 인기프로그램인 청정딸기수확체험은 연일 성시를 이루인기를 입증했으며 딸기케이크, 딸기비빔밥, 딸기피자, 딸기초콜릿, 생크림 딸기종류, 생딸기잡쌀떡, 딸기타워 등 다양한 먹거리 체험은 물론 딸기 페이스페인팅, 딸기패션타투 등 체험소재를 다양화해 오감을 즐겁게 했다.

또, 봄꽃정원과 조각공원에 활짝 핀 연산홍, 페츰니아, 팬지, 예술조각작품이 어우러져 화사한 봄기운을 느끼며, 실제 수확 중인 딸기베드 앞에는 하트 포토존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화지중앙시장에 문을 연 청년상

인점포 '딸기캔들', '담초공방', '곰지락', '호미책방', '오모찌', '호미떡', '황후떡' 등 청년집포도 함께 참여해 청년상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물론 참신한 아이디어로 축제장을 찾는 젊은 고객층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딸기떡 길게빔밥, 딸기비빔밥 체험 등 집단 참여형 대표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대표체험 프로그램 집중화와 관람객 딸기 이벤트 및 무료 시식행사를 확대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딸기 홍보전에 주력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어 논산딸기의 유명세를 입증했다.

체험 외에도 자전거소풍길대행진, 딸기사생대회, 전국어린이재품동아공연, 제4회 전국 청소년 맨스경연대회, 청소년트로트가요제, 팝페라콘서트, 락페스티벌, 버스킹공연을 비롯해 개막 축하공연, 논산 시민화합한마당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가미돼 다소 쌀쌀한 날씨를 아쉬워하면서도 객석을 가득 메웠다.

7일 논산딸기축제장 본무대에서 개최된 '제4회 전국청소년맨스경연대회'에선 예선을 거친 청소년

통정
양성평등교육



최홍목 계룡시장= 9일, 오전 10시 계룡시 보훈회관에서 열리는 양성평등교육 참석.

청년기획단발대식



노박래 서천군수= 9일 오전 10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도민체육대회 참가식에 참석,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사회복지봉사자교육에 참석,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한산도시문화제 청년기획단발대식에 참석.

천안시 사전 대비로 '재활용품 수거 대란 없다'

시에서 1월부터 재활용품 직접 수거해 분류배출 원활하게 진행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천안시가 지난해부터

플라스틱류 수거 거부 문제를 파악하고 재활용업체 협회와 주박관리사협회, 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의 협조를 받아 직접 수거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지난해 9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위탁하고 올해 1월부터 시에서 직접 수거 후 재활용선별 시설에 반입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재활용품 수거 거부와 관련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해 플라스틱 수거 차량 7대와 수거인력 14명을 증원 투입하고 예산 1억 2000만 원을 들여 분리수거용 투명비닐 봉투를 지원하고 있다.

재활용 마크 유무를 기준으로 분리배출토록 전체 공동주택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관련 회의를 지속적

부여 백미강달밤야시장은 13일 개장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오는 13일 백미강달밤야시장(부여 야시장)을 개장하면서 관광객들을 맞는다.

백미강 달밤야시장은 2014년 '행정자치부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6년 첫 개장한 이후 지난해 4월~10월까지 동절기 야외 운영했다.

2018년 백미강 달밤야시장(부여야시장 야시장)은 오는 1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4일은 개장식을 열고, 10월 27일에는 폐장한다. 시간은 오후6시(18시)~11시(23시)까지 부여야시장 광장(부여)에 성황로 173번길 12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젊은 소비층과 롯데리조트 등 부여 여행객의 야간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야시장 내 문화공간을 마련,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마술쇼 등 공연과 연꽃디퓨저, 캔들 만들기와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판매대에서는 해산물튀김, 스테이크, 순대, 타코야키, 닭강정, 떡갈비, 에그타르트, 티라미수 등 40여개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선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uynigh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백미강 달밤야시장을 통해 부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절한 응대와 좋은 상품을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더불어 기존 상인과 상생하는 야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부여=이정복기자

서천군 2018년 진로·진학 컨설팅 센터 운영 돌입

학생·학부모 전문입시상담 무료 제공...지역학생 교육 경쟁력 강화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컨설팅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천지역 학생들은 진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학컨설팅을 받기 위해 서울이나 천안 등 도시로 나가 수험에서 수백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비효율적인 대형 입시설명회를 찾아다녀야 했다.

이에 군은 지역학생들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천에서 대지중의 입시상담 전문가에게 1:1 개인별 맞춤진로·진학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천 진로·진학 컨설팅 센터를 부여마을 종합교육센터 내에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서천군이 주최하고 서림학당이 주관하는 서천 진로·진학 컨설팅 센터는 에서 매월 첫째, 둘째, 수요일 12월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부모동반 1:1 진로·진학·학습법 상담 ▲학생의 학습 성향검사, 진로희망, 목표 대학·학과 진단 ▲교과학습방법 등을 제공하며 개인별 약 1시간의 심층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난 4일에 처음 실시된 진학컨설팅에는 중·고등학생 5명과 학

부모가 참여했으며 컨설팅 후 한 학부모는 "그동안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서로 몰랐던 부분을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전문가와 1:1 상담을 통해 내 아이의 성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상담 받고 싶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군은 오는 10일에는 서천중학교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진학컨설팅을 진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림학당(953-85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김태선기자

천안시 자살 예방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총력

자살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다양한 계층 생명사랑지킴이 운영

천안시 동남?서북구보건소와 자살예방센터는 4월 자살예방주간(4.2-4.13)을 맞아 생명존중 인식확산을 위해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명사랑지킴이(Gate-Keeper)는 자살 위험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자살 위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연말까지 지역사회에서 중

현재까지의 약 1만여 명의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해 생명존중 인식확산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경로당 순회 교육, 고위험군 1:1 멘토링, 생명사랑지킴이 간담회를 통해 성인 생명사랑지킴이를 운영하고 대학생과 청소년 생명사랑지킴이(드림킴이)도 운영해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상담 및 프로그램, 교육

문의는 천안시자살예방센터(571-0199, 24시간 위기상담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이봉호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동정

주간업무보고회의 주제



오시덕 공주시장은 9일 오전 8시 30분 중회의실에서 주간업무보고회의를 주재.

스포츠타파크 조성 추진 보고회



김동일 보령시장은 9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주간현안 보고, 오전 9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스포츠타파크 조성 추진 보고회, 오전 10시 30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열리는 학부모 건강관리 지킴이단 발족식, 오전 11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해상철도 대척마련 민관군 업무협약식,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만세보령장학회 이사회 참석.

외부재원 확보 신규사업 발굴대회



이완섭 서산시장은 9일 오전 8시 40분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외부재원 확보 신규사업 발굴대회에 참석, 오전 11시 20분 행복한웨딩홀에서 열리는 따뜻한 나눔터 이동방사에 참석, 오후 2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신규공무원 임용식에 참석.

학생상담자원봉사체 운영협의회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9일 오전 10시부터 청사 내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학생상담자원봉사체 운영협의회'에 참석.

교통안전 민,관,학 협의회



조민행 보령교육장은 9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회 의실에서 열리는 2018년 보령지역 교통안전 민,관,학 협의회에 참석.

광고문의

(042)538-3030

서산시, 미국 헨콕대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최대 100만원 한도 내 50% 지원

서산시가 '제10회 서산시 중학생 미국 헨콕대 어학연수'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이번 연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4주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시에 위치한 헨콕대학교에서 진행된다.

헨콕대는 한서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미국 현지법인으로, 과거 KBS 교육장학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 입상학생들의 어학연수를 실시해 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시는 지난 2013년 헨콕대와 어학연수 프로그램 상호협력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 방학기간마다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총 9회에 걸쳐 실시된 이 연수에



는 21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한 호평을 받고 있다.

연수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서산지역 중학교 재학생 40명(저소득층 자녀 6명 포

함으로, 신청기한은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이다.

참가자는 담임교사 추천, 생활태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발되며, 참가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

료의 50%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왕복 항공료를 포함한 참가비 전액이 지원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시 홈페이지나 각 학교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획예산담당관 ☎660-2543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산=김정한기자

공주시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저감 사업 집중 지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최근 가축분뇨 등 악취에 의한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축산환경 개선책으로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입, 가축분뇨악취저감 시스템 사업 등 9개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분뇨악취저감 시스템 9개소, 축산환경개선 830여 농가, 액비저장조 지원 1개소, 액비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퇴액비화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수거비용 지원, 축산냄새저감유용미생물 지원, 냄새저감 친환경 양돈사 프로젝트 시범, 아름다운 축산환경 만들기 13개소 등이다.

시는 우선 주거 밀집지역 및 율해의 관광도시와 연계, 주요 도로변 등 위치한 축산농가 등에 집중 지원하고 점차 확대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할 방침이다.

류승용 축산과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축산인이 자연친화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보령 주산벚꽃길서 인생 샷 견져보자

6km 구간 봄내음 물씬... 10일에는 주산벚꽃축제 개최

보령시는 오는 10일부터 보령댐 물빛공원 및 주산 벚꽃길 일원에서 제14회 주산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주산 벚꽃 길은 보령댐 하류 웅천에서 시작해 6km 구간의 왕벚나무 2000여 그루가 벚꽃 터널을 이뤄 서해 최고의 벚꽃 길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해양성 기후로 수도권과 남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개화하는 특성상 10일 이후부터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주산면체육회 주관으로 열리는

주산벚꽃축제 행사는 10일 오전 11시 보령댐 물빛공원에서 난타와 풍물, 축하공연과 노래자랑, 민속경기, 경품추첨으로 축제 참가자들의 활력을 불어 넣는다.

벚꽃길 인근에는 시인과 문학인의 문헌비를 읽으며 봄의 정취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시와 숲길 공원'이 있어 주말 가족단위 이들이 객과 연인들에게 봄철 대표관광코스 각광을 받고 있고, 보령댐 하류지역에는 높이 90m, 넓이 10m 규모로 만들어진 인공폭포가 있어

주변 산세와 어우러진 웅장하고 시원한 물줄기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제장인 보령댐 물빛공원에서는 15일까지 다양한 먹거리와 각설이 공연을 볼 수 있고, 인근 무장포항과 해수욕장에서는 제철 수산물인 주꾸미와 도다리를 맛볼 수 있다.

우준영 주산면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당초계획보다 빠르게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하셔서 6km 구간의 벚꽃 길에서 인생 샷 견져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우리/동네

공주시 시립도서관

알뜰도서교환전 행사 실시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오는 14일 시립도서관에서 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가정에서 읽지 않는 책을 상호 교환하는 '알뜰도서교환전'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시립도서관 강북관 앞마당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책을 다른 책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교환가능한 도서는 출판년지 10년 이내의 교양 및 문학류, 아동도서 등으로 가져온 책 권수만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잡지, 만화, 참고서 및 훼손도서는 제외된다.

이날 행사에는 도서교환 뿐 아니라 캘리그래피 만들기, 붓과 관련된 그림책 동화구연, 개구리나팔·개구리모자·애벌레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알뜰도서교환전은 시립도서관에서 2007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시민 1만 3432명이 참여해 도서 3만 9382권을 교환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시립도서관 강북관에 전화(041-840-89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gongjuil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서산버드랜드, 봄맞이 특별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생태·문화체험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서산버드랜드에서 봄을 맞아 신비로움이 가득한 다양한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서산시는 7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서산버드랜드 일원에서 주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둠속에서 조명과 야광인형을 활용한 블랙라이트 인형극이 눈길을 끈다.

이 인형극은 철새박물관 생태체험관에서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과 오후에 열린다.

21일, 22일과 28일, 29일 오후 2시에 철새박물관에서 새를 주제로 펼쳐지는 마술쇼도 빼 놓을 수 없는 즐길 거리다.

서산버드랜드 7개소에 설치된 스텝프롬에서 리플릿에 도장을 찍는 스텝프투어와 4D영상실에서 마련된 전 시실에서 열리는 생태교육품 작품 전시회도 훌륭한 재미를 선사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철새박물관 ▲천수만의 사계절을 담은 4D영상관 ▲등지전망대 ▲생태놀이교실 ▲전기자동차 운행 등의 상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예약 신청 및 문의는 전화☎661-8054나 버드랜드 홈페이지(www.seosanbirdland.kr)로 하면 된다.

서산=김정한기자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houses and text describing their features and contact information.

오늘의 하이라이트

▲ 해피시스터즈(SBS 오전 8시 20분)



형주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승미는 세란이 더 이상 형주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

▲ 파도아파도아(KBS2 오전 9시00분)

수배령이 떨어진 정태(정현)를 잡기 위해 경찰들이 육분(이경진)의 집으로 들어닥친다.

케이블 영화

▲ 스타트렉 비욘드 (OCN 오후 6시40분)

전 세계가 기다려 온 <스타트렉> 시리즈의 화려한 귀환! <분노의 질주> 저스틴 티크 감독 & JJ. 에이브럼스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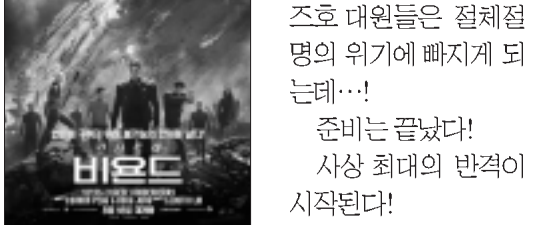
<스타트렉 비욘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의 공격으로 인해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한 엔터프라이즈호 대원들의 한계를 넘어서 반격을 담은 작품.

위험한 미션들을 무사히 수행한 후 평화롭게 우주를 항해하던 거대 함선 엔터프라이즈호. 최첨단 기지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던 중 엔터프라이즈호와 대원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사상 최악의 공격을 당한다.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인해 엔터프라이즈호는 순식간에 붕괴 되고, '커크' 함장(크리스 피안)을 비롯한 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낯선 행성에 불 시작하게 된다.

멈추지 않는 적의 공격, 함선과 팀원, 모든 것을 잃은 엔터프라이즈호 대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준비는 끝났다! 사상 최악의 반격이 시작된다!



현도 정태를 잡기 위해 부하들을 동원하고 춘자(정은혜)와 함께 은신처로 온 정훈(장재호)은 동철 패거리들에게 포위된다.

▲ 전생에 원수들(MBC 오후 7시15분)



뒤에선 지식을 부추겨서 신장이식검사를 받게 해?

고야(최유영)는 회사에서 지나(이상숙)와 가까워진다. 한편 사라(김보라)는 지식(구원)의 소식을 듣고 고야를 때리고 마는데...

▲ 브루클린 (채널CGV 오후 10시00분)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호평을 얻으며 화제를 모은 영화 <브루클린> 영국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에 빛나는 화제작!

뉴욕에서 만난 진정한 사랑과 또 다른 만남의 설렘을 그리다! 다시 시작을 꿈꾸는 이국, 브루클린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다!

낯선 뉴욕 브루클린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에일리스(시얼사 로넌). 낮에는 고급 백화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서 공부하며 브루클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일랜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독한 향수병에 시달린다.

한편, 공동 생활을 하는 아일랜드 커뮤니티 여성들의 도움과 격려로 차츰 안정을 찾아가던 에일리스는 이탈리아계 청년 토니(에보라 코헨)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계기로 점차 독립적이고 세련된 뉴욕인으로 변해간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날아온 언니의 부고, 급히 고향으로 날아간 에일리스는 그곳에서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짐(톰블 글리슨)과의 만남으로 흔들리게 되는데...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아산시립도서관 '2018 아산시 올해의 책' 선정

한책 함께 읽기 운동 일환...어린이, 청소년, 성인 각 분야별 1권씩 선정



아산시립도서관은 6월 한 책 함께 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독서를 통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2018 아산시 올해의 책'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각 분야별 1권씩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3주간 온·오프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분야별 최고 투표도서를 올해의 한 책으로 최종 선택했다. 어린이 부문 도서는 박현경 작가

의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어요>가 뽑혔다. 시각장애인 동생과 미술관에 가게 된 누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동생의 아픔이나 상처, 마음 깊은 곳에 지리한 어둠과 아이디어는 발랄함까지 잘 표현한 작품으로 큰 울림이 있는 책이다.

청소년 부문 도서는 제10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인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이다. 이 책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특

'봄나들이·신영진과 함께' 전시회

별한 성장을 그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

아름다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 아산시 중앙도서관에서 어린이 부문에 선정된 책 작가인 박현경 작가를 모시고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독서진흥팀(041-530-6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시립도서관은 6월 한 책 함께 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독서를 통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2018 아산시 올해의 책'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각 분야별 1권씩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부문 도서는 박현경 작가의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어요>가 뽑혔다. 시각장애인 동생과 미술관에 가게 된 누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동생의 아픔이나 상처, 마음 깊은 곳에 지리한 어둠과 아이디어는 발랄함까지 잘 표현한 작품으로 큰 울림이 있는 책이다.

청소년 부문 도서는 제10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인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이다. 이 책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특

청양가남초, 충남소년체육대회 물러 경기 메달 획득

충남소년체육대회 물러 부분 금3·은1·동2 획득



가남초등학교교장 김지석은 지난 6일 제46회 충남소년체육대회 물러 경기 부분에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다.

물러(인라인스케이팅) 경기에서 가남초 4~6학년 학생들이 참가해 다양한 부문에서 좋은 결과를 거뒀다.

개인경기에서 6학년 조미정 학생이 ▲여초부 P3000m 금메달, 5학년 한혜운 학생이 ▲여초부 T300m 금메달, 6학년 박성준 학생이 ▲남초부 P3000m 동메달, 5학년 김민준 학생이 ▲남초부 T300m 동메달을 차지하고, 단체경기에서는 ▲여초부 R3000m 제주한혜운,

이다솔, 조미정, 최정연) 금메달, ▲남초부 R3000m 제주이수, 윤진, 김민준, 박성준 은메달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다.

김병직 지도교사는 "열심히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 이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 자신감과 성취감이 높아지는 계

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먹의 향기(墨香) 가득한 테마서화전시회

대전시노인복지관, 복지관 서예 및 수묵화반 회원 참석

대전시노인복지관은 지난 5일 복지관 서예 및 수묵화반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노인복지관 '먹의 향기(墨香) 가득한 테마서화전시회' 개최식을 가

케이블 & 위성방송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Table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like OCN, MBC, SBS, YTN, etc.



김재현 산림청장과 조종욱 소방청장, 계룡산서 산불예방 캠페인 김재현 산림청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과 조종욱 소방청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7일 대전 유성구 계룡산국립공원(수통골) 일원에서 국립공원관리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산불조심을 외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한국폴리텍대학대전캠퍼스, 세종시 지역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약정체결 한국폴리텍대학대전캠퍼스 산학협력단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5일 세종시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과 복지연구소, YWCA, 대전·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첨단일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명화일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하게 되었다.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 충남레슬링팀 찾아 격려 충남도의회 김원태(계룡시 출신) 의원은 6일 대전에서 계룡으로 새롭게 이전한 충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의 훈련장을 찾아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제16회 전국 내포제 시조경창대회 개최 청양군내포제시조보존회(회장 김영애)가 주최하고 청양군과 청양문화원이 후원한 제16회 전국 내포제 시조경창대회가 지난 5일 청양문화회관에서 전국 시조인들의 열띤 경쟁과 함께 화합으로 성황을 이뤘다.



대전보훈청 3월 '청렴·친절 직원' 남성경 상담사 선정, 포상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유진)은 지난 6일 대전보훈청 대회의실에서 3월 '청렴·친절 직원'으로 남성경 상담사를 선정, 포상했다.



운곡면 3.1만세운동기념 제향식 열려 제99주년 운곡면 3.1만세운동기념 제향식이 지난 6일 운곡면사무소 광장 기념비 앞에서 유가족,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제향은 초헌관 강준배 청양부군수, 아헌관 충남서부보훈지청 이주배 보훈과장, 종헌관 유주섭 유족회장이 맡아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됐다.

“한국어의 세계화, 배재대 한국어문학과에서 시작되죠”

한국어 기초 연구·교재 개발까지 ‘활발’



“다문 화 청소년 학습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한국어 교육 과정·교재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배재대 한국어문학과 심혜영<사진> 교수는 최근 반가운 소식을 ‘또’ 듣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의 ‘중고등 한국어(KSL) 교재 개발’ 사업을 맡게 된 것이다. 2016년 세종한국어 익힘책 기본모형 개발 사업과 지난해 한국어(KSL) 교재 개발 기초 연구, 세종한국어 익힘책 다국어 콘텐츠 개발에 이은 쾌거다. 총 3억 41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중등교육자녀 등 학령기 KSL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재 개발이 목적이다.

심 교수가 소속된 배재대 한국어문학과는 학과 창설 이래 소속 교수 모두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교재 개발, 교원 교육에 탁월한 업적을 내고 있다. 배재대 한국어문학과 교수진은 2007년 삼성그룹에게 8개 언어권 한국어 교재 개발(책임 최정순 교수) 지원을 시작으로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이 발주한 한국어·한국문화 관련 과제를 수주해오고 있다. 지난 5-6년 사이만 해도 10여개 사업에 10억이 넘는 사업비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일례로 학과장인 박석준 교수가 책임 집필한 ‘세종한국문화 1, 2’는 세계 54개국 17개 세종학당 2017년 기준에 배포됐다. 세계인들이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익히는 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배재대 한국어문학과와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어문학과 교수진들은 국내 다문화 가정 학부모 역할을 위한 어휘집을 개발해 도움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고교용 한국어 교재도 자체 개발해 보급하고 현재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일환으로 라오스에서 사용



할 최초의 현지화된 한국어 교재도 개발 중에 있다.

다양한 교재 개발은 한국어 교육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연구 및 교재 편찬 작업에 한국어문학과 소속 대학원생들이 보조·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한국어문화 전문가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역량은 배재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육원 및 전국 대학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배재대 한국어문학과 및 대학원 졸업생들이 한국어 관련 공공기관 직원, 해외 세종학당 교사, 코이카 파견

교사, 중·고교 KSL 다문화 교사, 대학 교수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게 된 계기다. 배재대 한국어문학과는 전국적인 한국어 전문가 사관학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심 교수는 “국가사업인 한국어 문화 관련 기초 연구와 교재 개발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배재대 한국어문학과 구상원들의 연구·교재 개발 업적이 대내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다문화 교육 산실로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밝혔다.

이정복기자

서부평생학습관

장애인 기관 4곳 지원



서부평생학습관(관장 김갑배)은 서산시장에 인복지관 등 서산지역 장애인 이용시설 4곳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6강좌를 운영한다.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은 학습권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지 및 신체능력 향상을 통한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4기관 8강좌를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4기관 6강좌가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프로그램의 경우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 운영되고, 교육내용은 ‘오카리나’, ‘스포츠타킷’, 등의 신체 발달 프로그램 및 ‘미술심리치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이 각 기관 특성에 따라 지원된다.

김갑배 서부평생학습관장은 “기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는 평생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숲의 봄 향기를 입안 한가득

“화전 만들기 체험 하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 속리산말티재 자연휴양림에서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새봄맞이 화전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속리산국립공원 끝자락에 위치한 속리산말티재 자연휴양림은 조선 개임금인 세종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잠시 들렀다가 갔다고 전해질 만큼 산세와 경관이 화려한 곳이다.

속리산말티재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16동(16실), 산림문화휴양관 1동(10실)으로 14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편의시설로서 야생화 및 약용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로와 등산로가 있어 이용객의 선택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번 화전만들기 체험은 4월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며 매주 주말 선착순으로 사전모집을 통해 진행된다.

화전만들기 체험은 총 7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자연휴양림 내 봄을 알리는 다양한 꽃들과 봄나물들을 활용 참살과 함께 참여객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정상범기자

알림

▲ 2018 지방선거, #미투의 외침에 응답하라 기자회견 = 9일(월) 오전 11시, 시청 북문 계단.

백석대, 천안자살예방센터 수탁기관 선정

센터장에 보건학부 안영미 교수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가 천안 시로부터 천안시 자살예방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을 맡게 됐다.

천안시 자살예방센터는 ▲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 ▲ 자기치유프로그램 ▲ 청소년 고위험군 자기사랑 프로그램 ▲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 ▲ 우

울·자살예방교육 및 유가족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신입 센터장은 백석대 보건학부 정신간호학 안영미 교수가 위촉됐다. 이와 함께 천안시 자살예방센터는 4월 10일(화) 12시부터 17시까지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지역 내 자살예방 인식 향상을 위한 ‘생명사랑 공동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도와 천안시서북구보건소가 주최하고 천안시 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캠페인은 ‘함께하는 사회만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내 유관기관인 천안시동남구청 신진강북지센터, 천안시서북구청 신진강북지센터, 천안시중동권리통합지원센터, 천안시서북구치매안심센터 등과 함께할 예정이다.

천안=이봉호기자

건학 40주년기념 ‘제2회 벚꽃음악회’

순천향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회



매년 4월초, 충청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대학캠퍼스내에 흐드러진 벚꽃으로 몽환적(夢幻的) 풍광을 자랑하는 ‘벚꽃1번지’로 유명한 순천향대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클래식 음악회가 열렸다.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오는 10일 오후 6시 교내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 클래식 연주자 여우려진 건학40주년 기념으로 ‘제2회 벚꽃음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교내 동문 일대를 중심으로 만개한 벚꽃은 지역민들의 명소로 손꼽히는 ‘벚꽃

1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열리는 ‘제2회 벚꽃음악회’는 국립경향대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회로 레너드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 등 클래식과 영화음악, 벚꽃엔딩에 이르는 대중음악 등 크로스오버 연주로 구성되어 벚꽃을 만끽하고 싶은 아산시민과 재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연영상학과 재학생 김주희 씨 등 4명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교육정보원-KAIST융합교육연구센터

생각을 코딩하는 SW교육 지원 업무협약

대전교육정보원(원장 박현수)은 6일 오후 2시, 대전교육정보원 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하 융합교육연구센터와 ‘생각을 코딩하는 SW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전교육정보원과 KAIST융합교육연구센터는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의 IT·창의·영재교육 관련 제반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박현수 대전교육정보원장, 김성호 KAIST융합교육센터장, 맹준희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김성호 KAIST융합교육센터장은 “대전교육정보원이 구현 할 생각을 코딩하는 소프트웨어교육은 미래 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함께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정보원 박현수 원장은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인성·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인프라 구축을 공고히 하고, 상호 협력으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IT·창의·영재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새마을문고유성구지부, 군산 다녀와

지역민·아동들 함께 인문학 기행

새마을문고유성구지부(회장 강태현)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사업으로 근대사의 아픔을 담고 있는 군산을 지난 7일 새마을문고 회원 및 지역민, 아이들을 포함한 34명이 다녀왔다.

우리나라 안타까운 시점의 아픔

을 공감하고 일제 수탈의 현장을 방문하므로 애국심을 강조했다. 또한 역사공부를 책이 아닌 현장에서 느끼며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공감하는 모습들을 통해 인문학 기행의 만족감을 같이 나누었다.

송병배기자

대투 논란



김헌태 논설고문

세기의 재판으로 생중계 방송을 하며 주목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강압에 의한 뇌물 공여로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 4월 6일 오후 2시 10분의 법정 대한민국 역사에 비극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다. 김세운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의 판결 선고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지 않은 경우 3년 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사 사실 중 범죄 범죄열람표 4 순번 2-34기 각 공상 누설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을 해야 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 모두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자

18개 혐의 중 유죄 16개!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특가법 위반(뇌물) 혐의><강요 미수><공무상 비밀 누설> 국정농단사태의 정점이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비선 실세이자 공범인 최순실은 "다 나 때문이라며" 자책하였다는 말이 전언이 되고 있다. 박전대통령은 담당 실세들이 구속된 상태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보면 마치 청와대가 각종 비리의 온상인양 비춰지고 있다.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는 사실 늘 비극적인 결말을 자초했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이다. 그동안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주장들이 허언으로 그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닌 바가 대우 크다 할 것이다. 부정부패, 비리의 결말은 단죄이며 불명예, 비극이라는 점이다. 남북은 공연단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의아할 정도로 친밀감을 자랑하고 있다. 남북정정적 흥정에 의한 특별사면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오히려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특이하다. 친박 지지자들과 일부 정당 관계자들의 반발도 있지만 사법권이라는 보편적인 여론 앞에서는 무력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치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다. 두 전

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어 재임 시절의 부정부패와 비리의 단죄를 받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사태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민들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미디어들은 연일 패널들을 등장시켜 이를 곱씹고 있으며 인터넷과 SNS 상에서는 누리꾼들의 특이한 댓글을 도배하듯이 장식하고 있다. 한 때 잘나가던 측근 실세들이 구속된 상태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보면 마치 청와대가 각종 비리의 온상인양 비춰지고 있다.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는 사실 늘 비극적인 결말을 자초했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이다. 그동안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주장들이 허언으로 그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닌 바가 대우 크다 할 것이다. 부정부패, 비리의 결말은 단죄이며 불명예, 비극이라는 점이다. 남북은 공연단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의아할 정도로 친밀감을 자랑하고 있다. 남북정정적 흥정에 의한 특별사면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오히려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특이하다. 친박 지지자들과 일부 정당 관계자들의 반발도 있지만 사법권이라는 보편적인 여론 앞에서는 무력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치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다. 두 전

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어 재임 시절의 부정부패와 비리의 단죄를 받고 있는 이 비극적인 사태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민들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미디어들은 연일 패널들을 등장시켜 이를 곱씹고 있으며 인터넷과 SNS 상에서는 누리꾼들의 특이한 댓글을 도배하듯이 장식하고 있다. 한 때 잘나가던 측근 실세들이 구속된 상태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보면 마치 청와대가 각종 비리의 온상인양 비춰지고 있다.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는 사실 늘 비극적인 결말을 자초했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이다. 그동안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주장들이 허언으로 그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닌 바가 대우 크다 할 것이다. 부정부패, 비리의 결말은 단죄이며 불명예, 비극이라는 점이다. 남북은 공연단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의아할 정도로 친밀감을 자랑하고 있다. 남북정정적 흥정에 의한 특별사면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오히려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특이하다. 친박 지지자들과 일부 정당 관계자들의 반발도 있지만 사법권이라는 보편적인 여론 앞에서는 무력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치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다. 두 전

사설

연구관리기관 통폐합,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작업이 임박했다. 올해 초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기능성비 원칙을 확립해 세부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1부처 1관리기관을 원칙으로 연구관리 기능을 재정비한다. 추진 안에 따르면 이달 중반까지 연구관리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도맡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관리기관이 난립하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연구과제가 부처별로 칸막이 혹은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불가능했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도입 목적과 달리 오히려 과제가 중복되거나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등 역기능도 상당했다. 무엇보다 부처를 뛰어넘는 융복합 과제를 수행하기는 힘들었다. 정부는 이에 12개 부처 17개 기관을 손질할 계획이다. 연구관리 효율화라는 큰 방향에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남은 과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통폐합이라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집적권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다. 모두 3개씩 관리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나름의 기능과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다.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이 합쳐지면 분야별 연구 특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당장 기초과학과 정보통신 분야 과제는 기술주기와 특성이 많이 다르다. 또 하나는 구성원의 반목과 갈등이다. 2008년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했을 때 각 기관 출신별로 갈등이 심화됐고 일부 업무에선 여전히 반목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통폐합 성공 여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기고



유인규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장

먼저,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16만6천 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 명에게 수급의 혜택을 드렸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하였으나 소득·재산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여 집중안내함으로써 11만5천 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보하였으며 이 외에도 신청안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보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유도하여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 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특히,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기를 권한다. 이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자치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통상전쟁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

방주의가 득세하는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본격화 했다고 기억할 것이다. 미국의 통상공세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동맹국들에게도 무임승차를 이유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거센 역풍 속으로 한국도 빨려 들어가고 있다. 새해 초부터 트럼프의 통상공세는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세타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로 시작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폭탄으로 이어졌다.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평가받던 한미FTA는 미국에 무역적자를 안겨주는 나쁜 협정으로 폐기도 불사하겠다는 위협 속에 한국측은 협상에 임해야 했다. 한국정부는 점점 기울어져 가는 운동장에서 협상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철강관세를 수출자유규제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대신 자동차, 약가 등에서 양보를 했다. 한미 양국은 환율 관련 협상도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 끝난 줄 알았던 한미FTA 개정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후 타결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극심한 혼동 속으로 빠졌다. 협상의 판을 변화무쌍하게 키우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 한 것이다. 미국의 통상공세에 중국 역시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 미중 통상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그 파편은 고

소비자의 권익과 혁신경제의 가능성도 볼 안개처럼 사라진다. 셋째, 중국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중국은 4차산업혁명의 기회를 한국을 추월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THAAD 보복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기회론에 올리고 있다. 독립성이 보장된 규제기관, 입법-사법의 견제와 균형, 언론의 자유, 정부 견제를 자임한 시민단체 등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있지만 중국에 없는 것은 그대로 중국 리스크로 전이된다. 혁신해야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지만, 중국 리스크는 혁신과 무관함을 알아야 한다. 무모한 중국 기회론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귀착될 우려가 높다. 넷째, 트럼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국가안보를 핑계로 한 일방주의 통상공세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반도체까지 미국의 통상공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 트럼프는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고, 환율까지 협상하려고 한다. 한국정부야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환율 따로 대응을 고집한다면, 취약한 협상력을 더 약하게 할 따름이다. 제2의 철강폭탄이 터졌을 때, 트럼프에게 계속 끌려가지 않고 한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려면 분절화된 경제통상외교를 극복해야 한다.

스런 한국에 날라를 전망이다.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공세와 미중 통상전쟁 시대, 한국은 어떻게 생존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장기적인 과제에서부터 단기과제 순으로 전략적 제안을 제시한다. 첫째, 경제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전자제품, 반도체, 철강, 선박을 더 많이 수출하는 통상정책을 답습한다면, 기술어린 운동장에서 계속 경기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고급화시키고, 수출화하여 일자리 혁명의 불투명성을 만드는 비전을 세워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시효가 끝난 추격자 모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한국은 실패했다. 더 이상 실패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 둘째, 방화벽을 높이 쌓아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 북수국간 협정에 적극 참여해서 힘의 논리에 기초한 일방적인 통상공세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전략적 사고는 CPTPP의 가입과 연결되어야 한다. 중국의 견제를 우려해 참여를 주저한다면, 오히려 중국의 허장성세를 키워줄뿐, 한국의 협상력은 오히려 줄어들 따름이다.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과 FTA협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이유로 그 결정을 미룬다면, 기록권의 논리에 한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셈이다.

'온실가스 감축' 주민이 직접 나선다

이산 마실 · 홍성 마시월굴마을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공모 선정
충남도가 공공 및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실시한 '주민도동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공모' 결과 이산 마실마을과 홍성 마시월굴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운동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산 마실마을과 홍성 마시월굴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와 녹색생활 실천 활동 사업비 등 마을당 75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산 마실마을 및 홍성 마시월굴마을

은 마을회관 및 마을 공용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에너지 마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개 마을에서는 LED등 설치, 에너지절약 교육, 탄소포인트 주민 가입 확대 등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실천운동이 전개된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공공 및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강력한 범씨 소득 침중 순서가 결정"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전년도 이삭 썩 후 기상 환경이 좋지 못해 카디리병 등 벼 육묘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철저한 종자소독과 함께 개선된 종자소독 방법을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가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마른 종자를 30C의 소독약물에 담궜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 담작연 구팀이 개발한 소독법은 종자를 찬물에 이를 동안 담근(침중) 후 약제로 소독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카디리병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모가 짙어져 건 강한 모를 얻을 수 있다. ▶ 찬물 침중(2일) + 종자소독 특히 카디리병 발생이 우려되는 종자를 사용할 경우, 60C에서 10분간 온탕 소독 후 하루 찬물에 침중한 다음 약제소독을 하면 카디리병 방제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 ▶ 온탕소독 + 찬물침중(2일) + 종자소독 이같은 소독법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침중은 흐르는 찬물에서 더 좋으며 응답에서 실시해야 소독과정 중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또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약량을 옥심내게 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희석배수를 지켜야 한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대표전화 : 042-538-3030
팩스번호 : 042-538-2211
구독료 : 월 1만3000원 1부 700원

발행·편집인 김헌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시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 02-6406-5921 팩스 02-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세계로 향하는 KT&G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활난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지지자 없는
 열정과 자신감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온 KT&G.
 가능성에 끊임없이 도전하여
 글로벌 Top 4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 GLOBAL TOP 4

2017 수출 1조원 달성

